

News

'소비자금융 철수' 씨티은행, 국민은행·토스뱅크와 대환 제휴

연합뉴스

한국 씨티은행,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와 업무 제휴 협약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 시행 예정 발표… 제휴 은행 선정 결과에 큰 이변은 없어… 7월부터 다른 금융사로의 대환 희망하는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은 대출금 증액 없으면 DSR 등 가계대출 규제 적용되지 않아… 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만기 연장 가능

토스뱅크 1천억원 유상증자 결의

ZDnet Korea

토스뱅크,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결의… 올해 2월 두 번째 유상증자 이후 4개월 만에 진행… 출범 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7,000억원의 자본 추가 확보 이번 증자를 통해 총 2천만 주 신규 발행… 보통주 1,500만 주, 전환주 500만 주… 사측은 자본 건전성 강화 및 혁신 서비스 준비 목적으로 설명

4대 은행, 부실대출 '역대 최소'…금융지원 착시 심화

데일리안

4대 은행, 부실대출 규모가 1년 새 1조원 넘게 축소되며 역대 최소 기록 다시 써… 금융지원 정책으로 리스크 억눌리며 착시 현상 심화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 4개 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총 2조 7,72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1% 감소…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동기간대비 23.3% 감소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로 리스크 억눌려

은행들 올해 충당금 더 쌓는다… 적립기준 개편

파이낸셜뉴스

금감원, 시중은행 10여곳과 참여해 대손충당금 미래전망 반영방식 개선 TF 최종안 만들어 각 은행에 통지… 6월 말부터 대손충당금 적립시 등 기준에 따르게 돼… 개별대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상적 대출이나 산업군에 대한 부도율을 감안하는 방식… 당국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시중은행들이 10% 정도의 충당금 추가 적립해야 한다는 의견

삼성화재, 보험계약 대출 한도 10% 축소

조선비즈

삼성화재, 23일 오후 10시부터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 등 상품에 대한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해지 환급금 60%에서 50%로 낮춰… 약관대출은 사실상 담보대출이라 상환이 없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어… 다만 당국의 금융사들에 대한 건전성 관리 주문에 한도 조정하기로…

처브, 라이나생명 새 주인됐다…금융위, 대주주변경 승인

이데일리

금융위원회, 라이나생명의 대주주 변경 안건 승인… 새로운 대주주는 처브그룹… 인수 관련 논의 시작한지 9개월 만 미국 시그나그룹, 처브그룹과 매각금액 약 6조원 규모로 합의… 이번 매각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생보사들의 매각설도 다시 불거져..

다우기술, 49억9800만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이데일리

다우기술,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28만주, 49억 9,800만원 규모의 자사주를 장내 취득 취득 예상기간은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위탁투자증개업자는 키움증권

금융위, '증권사 9곳 480억 과징금' 증선위 상정

뉴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시장조성자 과징금 부과 통보 관련 심의 마치고 최종 결정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로 사안 넘겨…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내려질 예정… 증권사들, 특정 기간 동안 시장 조성 과정에서 95% 이상의 매매 주문 정정·취소율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